중남미 게임 시장 동향

- 불법 게임 판치는 브라질의 어제와 오늘
- 브라질 법원, Counter-Strike, EverQuest 판매 금지
- Pepsi 멕시코, 올바른 식습관 길러주는 어린이용 게임 출시
- 멕시코 Tepito 경찰청, 총기 반환하면 Xbox 콘솔 지급

불법 게임 판치는 브라질의 어제와 오늘

브라질의 불법 게임 시장의 형성 과정

- 과거 8비트/16비트 게임기 시절만 해도 브라질 게임시장의 전망은 대단히 밝았음
  - Sega가 현지 업체인 Tec Toy를 통해 'Master System'과 'Mega Drive'의 연속 히트를 이끌어내면서 상당한 입지를 굳혔고, 이들의 일부 타이틀은 포르투갈어 더빙을 동원하는 현지화로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음
  - 또, 인기 TV 프로그램에서 "Sonic" 등의 Sega 타이틀로 경연대회까지 열었을 만큼 미디어의 관심도 컸었음
- 그러나 Sony의 PlayStation이 정품이 들어오지 않은 탓에 밀수품만 활개를 쳤고, 조악한 불법복제 CD는 '터무니 없이 싼 값'을 앞세워 기존의 게임팩 시장을 무참히 무너뜨리기 시작함
  - 정품 게임이 높은 세금 때문에 더욱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없었음에도 정부가 무대응으로 방관으로 일관했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
- 결국 Nintendo의 합작벤처는 힘없이 파산했고, 이내 Tec Toy 역시 문을 닫았으며, "PlayStation 2" 밀수품이 들어오면서 한층 더 악화됨

브라질의 불법 게임 시장의 최근 현황

- 현재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PC 패키지 게임의 94%와 콘솔게임의 거의 100%가 불법복제 상품이며, 정품 가격이 평균 98 달러 수준인 데 비해 복제품은 겨우 8달러 남짓인 것으로 전해짐
- "고작 7~14.5 달러 수준인 현지 개발사들의 저가형 게임이나 온라인 배포형 게임조차 해킹과 불법공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,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게임시장 매출 예상치는 기껏 5,2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
- 정액제 온라인게임, 모바일게임, 광고기반게임,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용 게임 등 네 가지만이 브라질 업계의 생존책으로 거론되고 있음

[출처] Gameproducer, 2008.2.26

브라질 법원, Counter-Strike와 EverQuest 판매 금지

판매 금지조치의 주요 내용

- 지난 2007년 10월 브라질의 Goias 지방 법원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폭력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FPS 게임인 Counter-Strike와 MMORPG 게임인 EverQuest를

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, 현장에서 규제되지는 않았었음

- AFP 통신에 따르면,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브라질 정부 산하 소비자 보호국(PROCON: The State Consumer Protection and Defense Agency)은 지난 1월 17일 웹사이트를 통해 Goias 지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브라질 전 지역에 Counter-Strike와 EverQuest의 판매를 금지시킴
- 이번 발표 후 PROCON는 시중에 판매된 Counter-Strike와 EverQuest 게임 타이틀을 회수하기 시작했으며, 몇몇 PC방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17 곳을 적발해 낸 것으로 알려짐
  - 적발된 곳의 컴퓨터에서 해당 게임들을 모두 제거하고, 이 게임의 소유주에게는 소유 기간 1일당 3,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짐

게임별 판매 조치 규제의 근거

- EA가 배급하고 있는 Counter-Strike는 테러리스트와 대테러리스트의 대결을 중심으로 구성한 FPS 게임으로,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브라질 게이머들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브라질 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버전인 것으로 알려짐
  - 이 버전은 브라질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인 Rio de Janerio의 범죄 슬럼가를 배경으로 마약상인과 경찰관의 역할을 선택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어, “전쟁 스킬을 가르치고 폭력을 조장한다”는 것과 “소비자 권익을 해친다”는 이유로 금지 판결을 받음
- EverQuest는 “선과 악을 선택하는 심리적 갈등을 조장해 폭력성을 키우고 있다”는 이유로 금지됨
  - EverQuest는 아이템을 획득하고 아바타를 키워가는 전형적인 MMORPG로서 브라질에서는 공식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
- 그러나 Postal 2와 Manhunt(무삭제판) 같은 유사 게임이 여전히 팔리고 있어 판결의 일관성에 논란이 일고 있음

Pepsi 멕시코, 올바른 식습관 길러주는 어린이용 게임 출시

휴대용 게임, ‘Live Healthily’

- 유명 음료업체인 Pepsi는 2000년 이후 어린이(5-11세) 비만 증가율이 40%에 달하는 멕시코에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휴대용 게임, ‘Live Healthily’를 출시함
- Live Healthily는 ‘nutrin’이라는 이름의 어린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다마고치 류의 게임으로, 아이들은 매 순간 이 캐릭터를 통해 무엇을 사고, 무엇을 먹고, 어떤 운동을 할지 결정하게 됨

- Pepsi는 이러한 일련의 결정을 통해 음식을 섭취한 만큼 운동해야 한다는 단순한 원리를 멕시코 초등학생들에게 자각시켜, 비만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게임의 취지라고 밝힘
  - Pepsi 멕시코 지사 부사장인 Jorge Meyer는 "비만 문제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비만 문제의 대안이 되고 싶었다"며 게임 출시 배경을 밝힘

[출처] Gameguru, 2008.1.3

멕시코 Tepito 경찰청, 총기 반환하면 Xbox 콘솔 지급

권총 반납하면 Xbox, 소총 반납하면 PC 제공

- Reuter 통신에 따르면, 최근 멕시코 경찰이 총기 반납의 대가로 게임기와 컴퓨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
  - 코카인,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 유통의 소굴의 알려진 'The Fortress'가 위치하고 있고, 높은 범죄율로 악명 높은 Tepito 市에서 지난 2007년 3월부터 시행됨
- 권총을 반납하면 Xbox 게임기를 받을 수 있고, 소총을 반납하면 컴퓨터를 받을 수 있음
  - Tepito 市 경찰 당국은 초기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Microsoft가 기증한 소프트웨어를 깔고 있는 컴퓨터를 100여 대 확보하고 있다고 전함
-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 동안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게임이 범죄를 줄이는 데 성공해 그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

[출처] Gameguru, 2008.3.29